

21세기 로맨티시즘, 걸리쉬 패션

이효진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전공 교수

패션 트렌드에 있어서 1920년대 이후 복고풍(Retro)이라는 이름 하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시대가 주요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때로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겨졌던 옷들을 맞추어 입은 느낌이 들기도 하며 때로는 어느 시대, 어느 스타일인지 구분할 수 없는 옷들이 '복고풍'이라고 넘어 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정장류이든, 캐주얼류이든, 그리고 성별과 연령에 관계 없이 특히 21세기 들어 모두 복고풍의 디자인들이 많다.

그러면 왜 '복고풍'인 것일까? 그것은 현재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것이 인간성 소외이며, 동시에 우리가 갈구하는 것은 인간성 회복이기 때문이다. 현대로 올수록 사람들은 인터넷 가상세계에 몰입되어 고립된 생활을 하며 모든 것의 가치를 숫자나 돈으로 따지고 개인주의 팽배로 세상은 더욱 파괴적이고 각박해지고 있다. 즉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정신이라든가 마음이라는 따뜻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일이 드물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천년의 시작과 함께 인간 본연의 자유로운 감성의 표현이 중요해지면서 세기말까지 팽배해 있던 차갑고 냉정하며, 무표정한 패션 트렌드는 이질적인 것이 되었다.

그래서 패션 디자이너들은 좀 더 인간미 넘치던 옛 과거에서 디자인 모티브의 영감의 원천으로 삼고 있으며 그러한 경향은 낭만과 자연미, 좀 더 여성스럽고,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또는 반항적으로 개성을 발산하는 자유로운 디자인으로 표출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복고풍이란 트렌드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현재, 21세기의 초두 인간성 회복을 꿈꾸며 패션을 통하여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새 천년 패션에서 '로맨틱(Romantic)'이란 단어가 모든 감성과 표현 방법을 꾸미는 중요한 단어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패션에서의 걸리쉬(Girlish) 패션을 연구해 볼 연구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걸리쉬 패션은 최근 여성복 시장을 휩쓸고 있는 트렌드로서 이것은 소녀 취향의 복장을 의미한다.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이미지의 아이템들은 10대 소녀들이나 입을 까 싶은 취향의 의복들이지만 걸리쉬 패션의 고객은 정작 10대가 아니라는 점이다. 주름을 넣어 봉긋하게 부풀린 퍼프 소매, 커다란 리본 장식, 레이스로 만든 미니 드레스, 러플이 달린 티어드 스커트, 커다란 코사지, 알록달록한 스타킹과 발레리나 슈즈 등이 주요 아이템이다. 걸리쉬 패션은 꿈 많고 낙관적이었던 소녀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것으로, 더 어려 보이고 싶어하는 욕구와 더불어 30~40대가 많아진 것도 걸리쉬 패션이 폭넓은 시장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더욱이 사회적으로는 국내외 모두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주는 이야기와 사건들만이 뉴스를 타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현실에 만족하기보다 이상을 추구하고, 이성보다는 감정을 중시하며, 자연스러운 것을 중시 여기는 심리상태가 된 것이다. 그리하여 잠깐이라도 여유를 가지고, 로맨틱하게 행동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현재의 우리들 전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패션에 있어서 로맨티시즘의 한 경향으로 나타난 걸리쉬 패션을 연구해 보는 것은 현대의 삶의 의식을 인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삭막한 현 상황에서 즐거움을 찾아 볼 수 있는 하나의 이론적 자료를 객관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